

「청년농 포럼」 제4차 회의 결과 보고

1.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`26. 3. 24.(화) 10:00~13:00, 위원회 대회의실
- (참석자) 16명(포럼회원 11, 위원회 4, 외부 1)

2. 주요 내용

□ 주제발표

<농업 인력구조 및 세대전환 전략> 1조 발표 : 서종효 회원

○ 주요 내용

- (청년농 현장 상황) 현재 농업 유입은 정착 지원금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, 정착 단계의 지원이 부족하고 기성세대의 은퇴가 불안정한 상황
- (질적 고도화 및 성과 관리) 단순 유입에서 벗어나 성과 지표(KPI)를 도입하여, 성과가 좋은 청년농이 기업농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체계 구축 필요
- (무형 자산 중심의 승계) 농지·시설 등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선배 농업인이 쌓아온 유통 라인, 인맥 등 '무형 자산'을 승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
- (안전한 은퇴 및 사회보장) 선배 농업인의 명예로운 퇴장을 위해 사회보장형 퇴직연금 도입, 직불금 일부를 연금 자금으로 유보하는 방안
- (직업적 지위 안정화) 농업인을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등록 가능한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받게 하여 실업급여 연계 및 국비 교육 혜택을 확대해야 함
- (멘토-멘티 시스템 개선) 농업판 '링크드인'과 같은 통합 정보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멘토 풀을 관리하고, 멘토와 예비농 간의 매칭 및 상호평가 시스템 도입 의견 제시

<농지 제도 및 소유 이용 구조개편> 2조 발표 : 서진웅 회원

○ 주요 내용

- (농지 정보 비대칭 해소) 외부 유입 청년농은 양질의 토양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, 농지은행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여 거래 정보 및 토양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
- (농지 순환 촉진) 투기성 농지 적발 시 농지은행이 이를 회수하여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고, 고령농의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함
- (농지 연금 및 직불금 개선) 현재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경영이양 직불금과 해약률이 높아지는 농지 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(연령 상향 등)이 필요함
- (장기 임대 및 이용 계획)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 임대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확대하고, 26년간 방치된 시·군·구 농지 이용 계획 수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함

□ 포럼 운영 당부

- (단기·중장기 과제 분리) 포럼 결과물을 정리할 때 즉시 시행 가능한 '단기과제'와 법개정·전문가 검증이 필요한 '중장기 과제'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서 작성
- (전문가 및 선배농업인 자문) 향후 논의가 청년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가나 선배 농업인을 초빙하여 토론하는 방식 제안
- (통계적 데이터) 제안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 조사 및 연구 용역 검토. 청년농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필요시 자료 작성하여 제출 (3.27 한)

3. 향후 추진계획

□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청년농포럼 5차회의 : 2026년 4월 28일(화)

○ 조별 발표 순서 5조와 4조 발표 순서 변경

- * 각 조별 단독방을 통해 세부안건 지속 논의(조장이 특방 개설 운영)